

# 대한민국과 도스토옙스키의 유토피아

전문가 칼럼 - 유토피아



권기배

후마니타스 칼리지

#. 2015년 10월, 현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날 대한민국은 자살률 세계 1위, 장기불황, 출구 없는 청년 실업, 이념 갈등, 빈부 격차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860년도에 도스토옙스키가 러시아에서 보고 느꼈던 '절망적 음울함'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러한 것의 현실을 장밋빛 유토피아적 미래로 반전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도스토옙스키의 <우스운 자의 꿈>은 이 글이 쓰여진 150여년 후를 사는 오늘날을 현대인들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준다.

## 삶에 지진 추울한 인간들은 '유토피아'를 갈망한다

잃어버린 '낙원'을 향한 인간의 갈망은 현실에서 느끼는 자신의 모습이 더 초라하면 할수록 거대한 담론을 형성해 왔다. 이 담론에서 언급되는 낙원에 대한 상상력 목록의 상단에는 물질적이고 향락적 모습이 강한 '코케인(Cockayne)', 전원적이면서 목적 이상향인 '아르카디아(Arcadia)' 그리고 인간의 절제와 사회제도의 개선을 통한 '유토피아(Utopia)'가 자리 잡고 있다. 그 중에서 토마스 모어가 1516년 자신의 저서 <유토피아>를 통해서 소개한 '없는(ou-)과 '장소(topos)'의 그리스어 합성어인 유토피아에 관한 시공을 초월한 폭발적 관심은, 낙원의 상상력 목록에 이름을 올린 다른 매력적인 용어들을 제압하면서, 단숨에 담론 무대의 원초적인 주인공인 '낙원'을 '유토피아'로 대체하게 만들었다. 그 이후 삶의 무게에 짓눌린 우울한 영혼의 소외된 우리 인간들은 현



인간이 잃어버린 유토피아를 다시 찾는 길, 특히 지름길은 바로 타인과의 '소통'과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공감'에 있다

실의 도피처이면서 미래의 이상향인 '유토피아'를 목청껏 부르짖고 있다.

제국 러시아의 수도 페테르부르크에 살았던 인간심리의 냉철한 분석가, 잔인한 천재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도 1860년대 음울한 러시아의 현실을 몸소 체험하면서 '유토피아'를 자신의 작품의 주인공을 통해 찾고 있었다. 정통 슬라브주의자였던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러시아 정교의 공동체 정신은 서구에서 들어온 '초인 사상', '공리주의'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었고, 비잔틴 문화의 정통 러시아의 고대 도시인 모스크바를 대신해서 제국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었던 서구식 도시 페테르부르크는 가난, 청년실업, 대기오염, 매춘, 도박, 범죄 등으로 병들고 있었다.

이러한 러시아의 병폐를 개선하고자 작가의 출세작인 <죄와 벌>(1866)의 주인공인 백수 청년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준인'의 <분신>으로 오판해, 전당포 노파를 도끼로 살해하면서 사회적 유토피아를 외쳤다. 그러나 라스콜리니코프의 이러한 슬픈 절규는 동시대인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면서

공허한 메아리로 남아 '유토피아'의 희망적 미래에 의지하고자 했던 많은 러시아인에게 현실의 음울함에 대한 혐오감만 배가 시켰을 뿐이었다. 도스토옙스키를 최고의 예술가로 평가 받게 만든 작품 <백치>(1869)의 주인공, '바보성자'인 '미시킨 공작'도 음습하고 어두운 러시아의 현실 세계

## 유토피아를 다시 찾는 길은 '소통'과 '공감'이다

로 단 하나의 타오르는 '횃불'을 갖고 나타나서, 인간의 영혼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유토피아에 대한 기억의 복원을 인간에게 살피지만,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또 다른 '백치'가 되어 소설에서 쓸쓸하게 퇴장한다. 두 소설에서 묘사하고자 했던 도스토옙스키의 이상은 현실에 치친 러시아의 작은 인간들에게 정신적인 카타르시스를 주지 못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두툼한 책을 통해 살피하고자 했던 작가의 유토피아 건설의 과정과 목적이 너무 난해했기 때문이다.

서구의 합리성을 협오하면서 우연

성이 최대한으로 나타나는 '도박'의 매태에 빠져들어 한때 도박 중독자가 된 도스토옙스키의 모순된 인생처럼 답답한 현실을 극복하는 유토피아의 이상에 대한 작가적 혜안은 그의 아주 짧은 단편인 <우스운 자의 꿈>(1877)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2010년 상연된 영화 <아저씨>의 차태식의 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도스토옙스키의 '우인'은 세상과 절연된 채 타인과 소통 없이 살아가면서, 항상 '자살'을 꿈꾸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우인'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만든 사람은 바로 <아저씨>의 '소미'를 연상시키는 '어린 소녀'였다. '자살'을 잠시 멈추게 해 꿈속에서 잃어버렸던 '낙원'의 모습과 그 봉과 과정을 보면서 인생의 진실을 알게 하게 한 것은 바로 그 어린 소녀가 현실에서 겪는 '고통'에 대한 '공감'이었다. 달리 말하면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었다.

그렇다. 도스토옙스키가 우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 하고 있다. 인간이 잃어버린 유토피아를 다시 찾는 길, 특히 지름길은 바로 타인과의 '소통'과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공감'에 있다.

## ▶1면에서 이어짐

이 인을 가장 강조했던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공자다. 공자의 어록인 <논어>는 불과 1만 5천여 자에 지나지 않는 짧은 기록이지만 인이라는 글자가 무려 108회 나온다. 그런데 공자는 인에 대해 말할 때마다 모두 다르게 이야기했다.

예를 들어 번지라는 제자가 인이 무엇이냐고 여쭙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었고, 안연이 인에 대해 물자 '나의 욕심을 이기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 인'이라 대답했다. 또 중궁에게는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일러주었다. 심지어 늘 말이 많아서 꾸지람을 들었던 사마 우가 인에 대해 물자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인'이라고 대답한 적도 있다.

공자가 이렇게 여러 갈래로 이야기 한 인을 하나로 끌어 핵심을 보여준 사람은 맹자는. 맹자는 어린아이가 막 우물에 빠지는 순간을 가정한 '유자입정(孺子入井)'의 비유를 들어, 사람은 누구나 측은지심(惻隱之心)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맹자는



## 이 인을 가장 강조했던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공자다. 공자의 어록인 <논어>는 불과 1만 5천여 자에 지나지 않는 짧은 기록이 만 인이라는 글자가 무려 108회 나온다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목도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일단 불쌍히 여기고 가슴아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이 때 측은의 '측(惻)'은 상대와 나를 동일시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은(隱)'은 고통을 느끼는 마음이다. 맹자는 이 측은지심이 인의 실마리라고 말하는가 하면 때로는 측은지심이 바로 인이라고까지 이야기한다.

혹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상황을 가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측은

지심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맹자가 인간을 너무 좋은 쪽으로만 보았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요즘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 이를 테면 지하철 구내에서 사람이 철로에 떨어진 순간 어떤 사람이 번개처럼 뛰어들어 구해낸 일이 있었다. 사람을 구하는 짧은 순간, 그에겐 어떤 계산도 있을 수 없다. 맹자가 여기에 이런 행동은 모두 타인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인의 발현이다. 설사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늘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 참여마당

서예린  
프랑스어학 2014



## 연애시대

새내기 타이틀을 벗은지 1년이 다 되어간다. 그 동안 미팅이다 소개팅이다 연애 한 번 하기 위해 많이도 애썼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과 cc는 괴하고', '동아리에서 만나면 좋긴 한데 나중에 헤어지고 나면...' 등 연애에 관한 조언이 쏟아진다. 보는 사람마다 서로 인사말처럼 묻기도 한다. '안녕, 그래, 애인은 생겼고?' 너도 나도 연애를 못하고 있는 것이 꿈 슬프다는 듯이 대답 한다. '아니 아직...' 버킷리스트에도 어떤 형태로든 가장 쉽게 그리고 자주 쓰여진다. '연애'. 바야흐로 지금은 연애시대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연애하려고 할까? 왜 대학에 오자마자 필수로 해 볼 것이 연애가 된 것일까? 흑자들은 말한다. 어렸을 때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다고. 어느 정도는 동의한다. 연애도 경험이나 몇 번 겪고 나면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좀은 생길 것이다. 그런데 연애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좋은, 더 나은 연애를 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중학교 이후로 솔로 기간이 한 달을 넘어본 적이 없는 자칭 타칭 연애 중독자 A양. 그녀는 나에게 오직 한 사람이 나만 사랑하는 기분을 내가 느껴봤으면 좋겠다며 일단 아무나 만나보라고 조언한다. 나와 같은 솔로들이 주변 사람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1위를 다투는 것이 바로 이 말 아닐까? '일단 아무나 한 번 만나보자!'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 '아무나' 만나고 싶지 않아서 솔로로 지낸다는 것을.

이쯤 와서 솔로를 재정의하고 싶다. 연애를 갈망하고 있으나 하지 '못하는' 미완성의 상태? 연애가 하나의 스펙과도 같은 지금, 솔로들은 마치 어느 곳에도 끼지 못하는 도태된 이들처럼 비춰진다. 하지만 낭비낭(낭전 바이 낭전), 캐바케(case by case)라는 유행어처럼 모두들 자기 나름이다. 인생엔 답이 없다고들 하면서 왜 연애를 하는 것이 꼭 정답이 되는 걸까. 열심히 사랑하는 연인들의 모습이 충분히 예뻐 보이고 때론 부럽기도 하다. 그렇지만 딱 거기까지. 여기저기서 보내는 솔로에 대한 안타까운 연민의 눈길은 이만 거절하고 싶다. 연애 좀 하라며 인생에 대해 크나큰 중고를 하는 듯 다그치는 오지랖은 오히려 거부감만 들 뿐이다. 물론 내게도 솔로인 지금이 무척 서글프다는 듯이 얘기하며 기회만 되면 소개팅을 잡던 때가 있었다. 그렇게 몇 번의 만남에 걸쳐 스쳐지나간 그 남자들, 누군가에겐 지금 그들이 연애 상대일 것이다. 당장 카카오톡에 뜨는 프로필만 봐도 이미 수지, 슬기 등 다른 여자들이 그의 프로필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한번 모두에게 묻고 싶다. 나는 정말 연애하고 싶은가? 우리는 왜 꼭 연애를 해야만 하는 걸까? 일단 하고 나면 느끼는 점이 많기 때문에? 그냥 주변에서 다들 하니까? 연애 또한 인간관계의 연장선이다. 전학 간 학교에서 빨리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는 마음에 일단 마음 먹고 아무나 친구가 될지라도 결국에는 마음이 맞는 친구와 어울리게 되어 있다. 연애도 마찬가지다. 각자에게 맞는 연애 타입과 취향이 있는 법이다. 우리 서로 취향 존중하기로 하자. 솔로는 단지 연애 중이 아닐 뿐, 연애 '못하는' 중이 아니다. 혼자임에 대한 위로는 필요치 않다.

전국에 있는 솔로들, 안녕한가? 오늘도 마감기간이 언제인지도 모른 채로 쫓기는 과제인 '연애'에 치였을 당신에게 심기운 안부를 묻는다. 우리... 연애, 꼭 해야 할까?

학교생활을 더 잘하고 싶은 친구들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하고 싶은 친구들  
자신을 좀 더 이해하고 원하는 친구들  
진로를 찾고 싶은 친구들

언제든 학생생활연구소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 산담을 받으면 어떤 도움을 받나요?**

1. 자신을 보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2.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지지를 받습니다.

**Q2. 비밀 보자기 되나요?**

검사해석 및 개임상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은 비밀 보장을 가장 우선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Q3. 어떤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1. 진로 및 학습검사  
U&I 진로탐색검사  
진공 및 흥미분야와 자신의 성격간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선택?** 진로홀드와 자가성형이 맞지않아 진로선택이 고민될 때
2. 심리 및 성격검사  
다면형 인성검사 (MMPI-2)  
자신의 행동 및 성격특성과 적응정도에 대한 이해를 도움  
**선택?** 나의 행동 심리상태가 궁금할 때 (무용, 불안 등)
3. 질 및 성격검사 (TCI)  
자신의 기질과 성격을 평가하여 나의 생각과 감정, 대인관계 등에 대한 이해를 도움  
**선택?** 자기 성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때
4. 성격유형검사 (MBTI)  
자신의 심리적 경향성을 알고 성격의 장/단점을 알아봄  
**선택?** 자신과 타인에 대해 이해하고 싶을 때

**Q4. 산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화 / 메일 / 방문

서울영리소  
02) 961-0207  
counsel@knu.ac.kr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센터 5,6번방  
국제영어  
031) 2120-2806  
counsel@knu.ac.kr  
학생회관 218호 학생생활상담실  
운영시간: 오전 9시 ~ 오후 17시  
(12시~13시는 점심시간입니다.)